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마가복음 15:33-47

【인도자를 위한 예화】

이동원 목사님의 「천로역정과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목회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 때 누구를 찍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성경적 방향은 제시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려면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전제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의’, ‘평강’, ‘기쁨’(복지)이라고. 저는 한 정치적인 당이 이런 가치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어떤 가치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을 찍으라고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한 선택을 그때그때 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수보다도 훨씬 위에 있고 진보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야를 좁혀서 어느 한쪽, 좌우에다가 그리스도인의 가치 전체를 투입시키려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총체적 전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좁은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 이동원, 「천로역정과 하나님 나라」(두란노)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선택하나요?

【본문 읽기】 마가복음 15:33-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42절의 ‘준비일’(헬라어로 파라스큐에)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준비일’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전날인 금요일인 동시에 유월절의 준비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 하루 전날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로 그 준비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준비일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 후 오후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장사하길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방치함으로써 안식일과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요 19:31).
이러한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요구했고 돌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곳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평소애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몇몇 사람이 장례를 주도하고, 몇몇 여인이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38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청색·자색·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진 데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히 10:19). 인간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단절을 겪었고, 대제사장만이 인간을 대표해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 줍니다(엡 2:14~16). 둘째, 구약 제사 제도가 더는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전조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

짐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성전의 파괴를 보여 줍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 줍니다.

적용과 나눔 I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한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져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 넓게 열려 있으므로 어느 종족,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마 28:20). 우리도 늘 그 명령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43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에서 온 요셉’을 의미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기에 마가는 동명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그의 출신 지역을 함께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성향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당돌히’(43절)입니다. 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자임을 보여 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죄로 인해 형을 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는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역죄로 사형된 사람의 시체는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시체를 요구하는 자 역시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죄인으로 지목한 자의 시체를 거두려는 행위는 자칫 자신이 소속된 산헤드린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산헤드린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온 지위와 명성은 물론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며, 자신의 소신대로 담대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던 자였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예수님을 따르던 진실하고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 나라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내가 소신껏 담대히 진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백성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만난 요셉은 자신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려는 뜻을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어 드리는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과 성공에 유혹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삽니다.